

만나고 싶었습니다 - 기양종합사회복지관 정종우관장 (현 성공회대학교 교수) -

기 양 종합 사회복지관

전문성을 가진, 우아하고 품위 있는 사회복지사들 어때요?

야속시간보다 이른 시간, 꽤 매서운 추위에 얼어붙은 몸을 따뜻한 녹차로 녹이며 기다리다보니 정장을 입은 깔끔한 모습의 사람이 들어온다. 저 사람이 사회복지관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인가? 라는 의문이 들 만큼 너무나도 세련된(?) 외모의 정종우 관장(현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직원들과 함께 직접 주방청소를 하고 온다며 구수한 경상도 사투리를 내뱉는다. 인터뷰를 시작하려하자 “수진 씨~~ 잠깐 이리 와 봐요, 내 헤어스타일 괜찮은가?”하며 직원에게 물어보자 “네, 멋져요”라며 멋쩍은 듯 서로 농담도 건네는데. 이러한 작은 모습 속에서도 이곳 직원들은 모두가 가쪽 같은 분위기이며, 또한 우리 사회복지 현장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모습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다.

취재/기사: 김태영_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진: 박용득_한국사회복지사협회

연구년, 사회복지 현장에서 경험하려 준비 관장이기 이전에 교수 역할이 제일 우선 강조

현재 성공회대학교에 재직중인 정종우 관장은 지난해 12월 1일 이곳 가양5종합사회복지관장으로 취임, 현재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교수들은 원래 제임 중 연구년(안식년)이라는 기간에 연구를 하는게 보통이지만, 정 관장은 국내 사회복지현장을 택하였다. “제가 늘 생각해왔던 일을 마땅히 하는 거라 특별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연구년 동안 여건이 허락한다면 국내 사회복지현장에 있기를 원했고 소문 없이 혼자 오랫동안 준비해왔어요. 올해 2학기부터 연구년이 시작되는데 조금 일찍 현장으로 온 것이고, 법인의 사정에 따라 변하겠지만 여건이 된다면 계속 현장에 있고 싶습니다.”

그러나 관장이기 이전에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의 역할이 제일 우선이라고 강조하며, 여건만 허락한다면 계속적으로 현장과 대학에서의 역할을 조화롭게 수행하고 싶다고 하였다. 현장에 나와 어려운 점도 있을 법한데 항상 현장에 밀접해 있었던 탓인지 별다른 어려운 점은 없다고 한다. 다만 나오기 전 조금 걱정된 부분은 행정기관과의 협조 관계인데 근무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관계로 현재까지는 어려운 점은 없다고 한다.

원천적 한계로 인해 사회복지 영역 축소는 어쩔 수 없어 사업비 이외 인력 전문성 제고 위한 예산 확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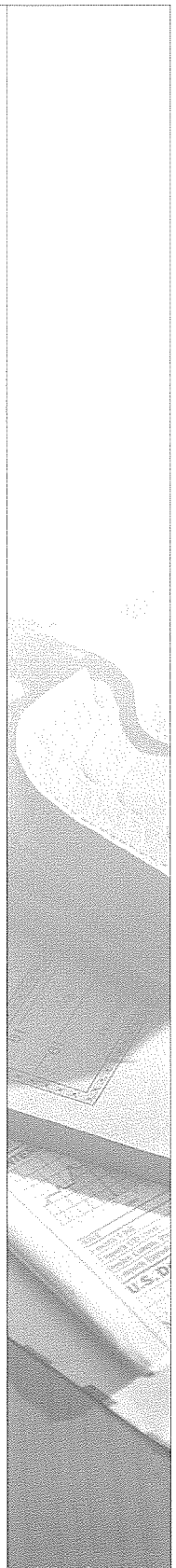
정 관장은 작년 한해 사회복지계를 달구었던 ‘서울복지재단 대표 비전문가 선임 관련 퇴진 시위’ 때 서울 시청 앞에서 직접 1인 시위를 하였다. 우리 사회복지계의 전문성과 정체성 문제에 대해 의견을 물어보자

“이러한 부분은 우려가 아닌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사회복지계의 위기입니다. 언제부터 사회복지지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리고 민간 사회단체들로 인해 복지 영역이 좁혀져 왔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점점 더 그렇게 될 거구요. 나름대로 학교사회복지와 같이 영역을 더 넓히려고 노력하고는 있지만, 현실은 여러 가지로 어렵고 오히려 빼앗기는 약한 입장에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천적·태생적인 한계라고나 할까요.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한계가 있기에 사회복지사 영역이 좁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건강가정지원센터문제는 복지영역을 침범하는 일이라 더욱 큰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 나름대로 전문성을 개발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지만, 나라에서 나오는 보조금으로는 어려운 게 현실이죠.”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조심스럽게 한마디 건네는데 “일부 사람들이 반대도 하겠지만, 저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공동모금회 자원을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보조금에만 의존해 사업만 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사들의 능력개발비용도 확보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동모금의 일부 지원으로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이 향상되면,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적인 부분과 직결되고 클라이언트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니 긍정적으로 한번 고려해 보아야 할 문제 인 듯싶습니다.”

자원 개발과 활용이 사회복지사의 몫 어려운 시기, 사회복지사협회를 중심으로 뭉쳐야

지난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사회복지사 업무매뉴얼을 제작하며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현



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자원봉사자가 하고 있는 일, 그것이 결국은 사회복지사의 업무라고 많은 수가 대답하였다. 이 결과에 대해 “사회복지사들이 타 영역에 비해 많은 것을 요구받는 것은 인정합니다. 기본 전문영역 업무 이외 요즘은 많은 것을 필요로 해 사회복지사는 텔런트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하곤 하죠. 사회복지사는 대인서비스 제공이 전문이기에 그것만 하면 좋겠지만,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자원도 끌어 와야 합니다. 주어진 돈으로 하는 것은 다 할 수 있지만 자원을 끌어오고 그것을 활용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문제이다. 특히 급여인상 부분이 해결되어 우리가 노력 한 것에 대한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사협회에 대한 사회복지사들의 낮은 관심도에 아쉬움을 나타내며 어려운 시기인 만큼 협회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과 권익옹호, 대외협력 활동 등이 많아져야 하며, 그렇게 살아 움직여야 사회적인 발언권 또한 생기게 된다고 한다.

사회복지에 대한 동기유발 중요시

자격제도 및 실습 강화 필요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어떠한 모습인지 물어보자

“저는 주로 사회복지에 대한 이론 학습 보다 동기유발에 중점을 둡니다. 그리고 이론보다는 현장 감각을 키워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란 현장 학문이니깐요.” 사회복지란 실무에 대한 이해 없이 받아들이기 상당히 힘들다고 한다. 어려운 환경이지만 건디면 사회복지 기관장이 되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가치 있는 삶을 만들 수 있다고.

현재 우리 사회복지교육의 문제점을 물어보자,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남발되는 것을 제일 먼저 지적하며 “자격증 남발 문제는 우선 교과과정을 인정받는 학과와 기관을 통제해야 합니다. 무엇이든 귀해야 대접받는데, 사회복지사는 너무 많아요. 제도적인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고쳐 배출되는 인력수급에 대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특수교사의 경우 이 부분에 대한 통제가 잘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장 교육이 현재보다 더 강화되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슈퍼바이저의 역할 또한 강화되어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한다. 가장 이상적인 실습 교육은 슈퍼바이저 옆에 실습생들이 자리를 잡고 그림자처럼 함께 다니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아직은 불가능하기에 정 관장은 우선 사회복지관내에 실습지도실을 만들어 실습생이 언제든지 와서 공부하고 슈퍼바이저와 함께 하기를 바란다고 한다.

현장 사회복지사에 대한 보수교육 필요

법제화 힘들지만 문제 해결해 노력해야

현장 사회복지사들의 보수교육은 전문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보수교육에는 긍정적이지만 법제화가 되기까지 힘이 들 겁니다. 그러나 법제화 후 보수교육이라는 것이 비용이 들기에 그 부담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도 고민해야 하는데, 그 부담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이나 기관에 어떤 식으로 부담 시킬 것인지도 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관들마다 예산은 정해져있는 관계로, 사회복지사들의 교육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 있으니 개인에게 책임이 주어질 가능성이 높아 질것 같네요.”

이러한 모든 문제를 고려해 볼 때 수퍼바이저교육, 실습인증제, 보수교육, 평가는 모두 연계되어 맞물려 가야한다는 것이 정 관장의 생각이다.

사회복지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정 관장은 앞으로도 많은 꿈을 안고 있다. 간혹 정 관장에게 로또가 당첨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면 사회복지회관을 만들 거라고 한 다는데, 가칭 '주민복지연수원' 과 같은 주민복지 교육공간도 마련하고 싶다고 한다. 한려수도의 절경과 생선회로 유명한 경남 삼천포가 고향이어서인지 성격 또한 바다처럼 시원 시원 하고 화끈한 정종우 관장. 사회복지를 하게 된 동기 또한 고향에 대한 남다른 애착에서 지역복지에 대한 사랑을 키워 시작하게 되었다고 말하는데, 그래서일까? 정 관장의 지역복지에 대한 열정은 아주 뜨겁게 빛이 나고, 특별함을 지니고 있다. 아니 지역사회복지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와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사랑 또한 그렇다. 이제는 힘들게 겨우 일하는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전문성을 가진 우아하고 품위 있는 그런 사회복지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한다. 그렇다고 단순히 물질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그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들의 전문성을 고려한 품격 있는 사회복지 속에서,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함께하는 사회복지를 하고 싶다는 희망을 이야기하며 인터뷰를 마쳤다. 



▲ 복지관 직원들과 한컷. 이곳 직원들은 정종우 관장을 중심으로 가족같은 분위기속에서 웃는 얼굴로 일하고 있다.